

출애굽기2:23-25 그 길에서 나오기

애굽의 이스라엘의 박해 정책의 목적은 이들을 노예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을 세워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 살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아면 살려라 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직접 영을 내려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과 정책 가운데 태어난 남자 아이들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1.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1:17)

히브리 산파인 심브라와 부아라 하는 자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이 되고 애굽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데로 합니다. 세상의 왕도 높지만 하나님 밑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습니다. 죄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을 성경에선 경외하라고 합니다. 시34:7“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34:9“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본문 20절 “-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 경외하는자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십니다.

2.구원하시는 하나님(2:2-3)

엄마가 자식 버린다는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이의 울음 소리가 커지게 되자 더이상 키울수 없어서 이제 갈대로 상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우는 모세는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왕궁에서 자라고 교육받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절묘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모세는 엄마의 길리움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우리가 볼때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모양세가 됩니다. 그런데 출2:15절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구원은 조건이나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왕이면 어떨고 미디안 목자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3.하나님의 은혜(2:24-25)

24과 25절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 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그 기억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북미주 개혁장로교회(CRC)
사랑의동산교회
Dong San of Love C.R.C.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 / 213.505.4889(목사관)